월/요/광/장

장택규

‘돈’ 깨끗이 쓰기와 신뢰사회

남태평양의 얍(Yap)이라는 섬에서는 과거 바퀴 모양의 커다란 돌덩이를 화폐로 사용했다. 그러나 돌 화폐가 너무 크고 무거워 상거래를 하더라도 운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돌 화폐는 그 자리에 두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서로 인정하면서 거래를 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아 꺼내기 어려운 돌 화폐에 대해서도 서로가 존재를 인정하고 거래에 이용하기도 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례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보관 및 운반이 어려운 실물화폐 대신에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 화폐로 사용됐다. 그러나 화폐의 주조권을 가지게 된 일부 국가에서는 금, 은의 순도를 낮춰 주화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16세기 말 토마스 그래샴이라는 영국의 금융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남겼다. 순도가 낮은 나쁜 돈이 순도가 높은 좋은 돈을 쫓아낸다는 의미이다. 돈이 신뢰를 얻으려면 돈을 만드는 당국의 신뢰성 역시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금화나 은화의 가장자리를 몰래 깎아내어 이득을 보려는 현상도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화의 가장자리에 깔쭉깔쭉한 톱니모양을 새겨놓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통용되는 100원화나 500원화의 가장자리가 우둘투둘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고안된 역사적 산물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을 이용하는 오늘날, 상호 신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할 수 있다. 국가 간 교역규모가 확대되면서 화폐로서의 금, 은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폐를 이용하게 됐다. 지폐는 귀금속과는 달리 본원가치가 거의 없다. 따라서 지폐가 화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화폐는 경제에 있어 혈액과 같다. 경제에 주입되는 혈액은 신선해야 한다. 위조되고 변조된 화폐는 우리 몸에 침투된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혈관을 돌면서 경제를 병들게 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화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첨단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다. 숨은 그림, 부분 노출 은선, 홀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국내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으나, 작년 한 해만 해도 만 여 장이나 발견되었다. 최근 이러한 위변조 화폐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위변조 화폐를 집중 관리토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앞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협조를 얻어 위폐 유통 방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돈은 돌고 돈다. 돈이 경제의 혈관을 잘 돌려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돈이 돌다가 더러워 못쓰게 되면 한국은행에 되돌아온다. 수명이 다한 지폐의 량이 작년 한 해만 해도 400여t에 이른다. 과거보다는 크게 줄었다고는 하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의 약 5배의 높이가 되는 규모다.

돈이 부족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새 돈을 만들어 공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새 돈을 만드는 데 한 해 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지폐의 소재는 종이가 아닌 100% 순면이다. 원면을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 돈을 만드는 데에도 외화가 유출되는 셈이다. 동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0원화, 100원화, 500원화를 만드는 데 주로 쓰이는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다.

사실 일부 동전의 경우 액면 값 보다 만드는 값이 더 높다. 새 동전을 만들면 만들수록 한국은행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를 악용하여 최근 금속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동전을 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었는데, 최근 한국은행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주화 훼손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압착·분쇄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생긴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돈을 사랑하고 아끼자’라고 부탁하고 싶다. 돈에 탐욕을 가지고 아껴서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깨끗이 휴대하고 사용하여, 화폐 폐기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신뢰사회를 만드는 데 ‘돈 깨끗이 쓰기’가 그 출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세계화 가능성 보여준 ‘디자인비엔날레’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52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됐다. 9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디자인 전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올 디자인비엔날레의 가장 큰 성과는 ‘광주 문화수도’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다. 영국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과 뉴욕타임스지 등 세계 유수 언론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가장 경쟁력 있는 디자인 이벤트로 정착할 것이다”라고 극찬했다. 그동안 ‘안방 잔치’라는 지적을 받았던 디자인비엔날레가 이번 전시를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광주=문화도시’의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

특히 도심에서 진행된 ‘광주 폴리’는 시민들이 광주가 역사도시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도심 재생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예술을 통한 광주의 재발견인 것으로 디자인비엔날레의 지향점을 말해주고 있다.

디자인비엔날레 성공 노하우의 프랑스 및 터키 수출, 어번폴리의 해외 순회전시 추진, 대기업의 일부 작품 제작 의뢰 등은 예술성과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디자인비엔날레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일부 작품의 작동 중단, 작품 설명 부족, 행사요원의 불친절 등 운영상 문제점은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관람객 중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극소수에 그친 것은 디자인비엔날레의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다음 대회 때부터는 개최기간에 열리는 영암 F1코리아그랑프리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외국인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디자인비엔날레 재단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디자인비엔날레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광주시 공공디자인 개정 신중 기해야

광주시가 3년째 적용해온 쓰레기통, 버스승강장, 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보다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행정력은 물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공공디자인 개정안은 표준디자인을 “반영하여야 한다”에서 “권장하여야 한다”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역시 ‘우선 적용’을 ‘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강제조항을 권장 또는 임의조항으로 바꿀 경우 각 자치구나 시공업체에서 표준디자인과 다른 디자인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로시설물 설치 업체들이 대부분 지역 내 영세업체들로, 업체마다 각기 다른 특허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도 구의 특징이나 문양을 시설물 디자인에 포함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표준디자인 개정으로 인해 광주시의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표준디자인이 바뀔 경우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표준디자인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지금까지 유지했던 틀 자체를 개정한다는 건 자칫 개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건축 전문가들이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표준디자인에 좀 더 다양한 색채와 용량, 서체 등을 포함시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런 이유에서다.

개정된 공공디자인이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면 그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일자리 해답, 제조업에 있다

최종태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진보적인 제조업 협력체(AMP)’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에도 적극 나서자는 취지다. 영국 정부는 올해 ‘국가기술혁신센터 네트워크’ 계획을 발표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IT 강국인 인도도 제조업 발전 정책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제조업 강화에 나섰다.

이쯤 되면 전 세계가 제조업 붐 속에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동안 제조업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국부 창출의 해법을 찾으려 했던 국가들이 이처럼 제조업 부흥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조업의 중요성은 경제성장과 수출증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이 곧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에 대한 회의론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1989년 28%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향세다. 탈산업화가 진전되고 기계화·자동화가 확대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하지만 이는 제조업이 가진 특수한 고용창출 효과를 배제한 논리다.

주목할 것은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여전히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며 전후방 연관산업,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파생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이를 테면 완성차 업체 한 곳은 여러 부품업체와 연관을 맺고 여기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수없이 많다. 얼마 전 타계한 스티브 잡스는 모바일기기라는 제조상품에 다양한 응용 콘텐츠와 서비스를 결합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해냈다. 아이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앱 개발기업이 생겨났고 일자리가 만들어졌는가.

중소기업의 잠재적인 고용확대 능력도 무시 못할 요소다. 중소기업이 건실히 성장할 때 그 과정 속에 자연스레 일자리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일이 곧 ‘고용없는 성장’을 타개할 해법이요, 그 작업은 제조업의 터전인 산업단지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는 우리가 처한 한국적 현실에서 비롯된다. 산업단지가 여전히 국가와 지역경제, 고용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권만 보더라도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크고 작은 162개 산업단지가 제조업 생산의 60%, 고용의 70%를 창출하고 있다. 물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여수와 군산을 제외하고는 대기업 수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광주의 광산업, 군산의 자동차·풍력, 대불의 해양레저산업, 익산의 섬유신소재, 여수의 첨단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싹트고 있다. 단순 조립·가공 수준에서 벗어나 첨단 제조업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려는 호남권의 선택은 희망적이다.

이제는 기업들이 세계와 견줘 손색 없을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연계를 강화해 성장 발판을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이른바 클러스터로의 전환이다. 생산지대에만 머물렀던 산업단지에 다양한 기능을 강화해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환경으로 가꾸는 일도 필요하다. 산업단지를 일터이자, 배움터, 즐김터의 복합공간으로 만든다면 난제였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공유지’라는 말이 있다. 제조업체와 숙련 기술자, 주변 대학과 연구소의 R&D인력,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연계 지원하는 공간이 결합된 곳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산업단지다. 전국 곳곳에 잘 발달된 산업공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제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

기 고

인디언과 사회복지사의 평등

유순남

환경과 평화를 노래하는 ‘인디언 수니’라는 가수가 있다. 그녀의 노래는 인디언처럼 꾸밈이 없다. 춤사위 또한 몸치인 나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자연스럽다.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 ‘왜 먼 나라 인디언 순이일까? 토속적인 순이라는 이름 앞에 자기 고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담양이나 장흥 같은 지명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난봄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답을 짐작하게 되었다. 인디언이라는 말은 아마도 ‘인디언 아나키’ 즉 자유, 자치(평등), 자연의 정치인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를 의미할 것이라고.

미개인들로 비춰지고 있는 인디언들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몇 백 년 전부터 아나키 민주주의를 했고, 그것이 1791년 미국 헌법을 비롯한 근 현대 서구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늘그막에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가 더해질수록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책을 읽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사회복지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실습이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처지라 야간에 인터넷 강의를 듣고, 여름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해야 했다.

실습 첫날 아침, 청소를 하고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데, 아이들 장난감인 레고 두 상자를 씻으라고 내놓았다. 구슬 같은 땀방울이 머리에서 흘러내렸다. 오전수업을 하고 나니, 점심 배식과 설거지를 도우란다.

기름기 제거를 위해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는데 에어컨을 켠 사무실과 통하는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주방은 햇빛이 들어오는 쪽의 문 하나만 열 수 있어 마치 찜질방처럼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사회복지 현장의 운영과 실태조사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지도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틈나는 대로 짓무른 야채 다듬기, 후원 받을 물품 견적서 떼어오기, 화분 옮기기, 물청소하기 등도 한다. 오후 수업 후 다시 저녁식사 배식과 설거지 그리고 청소를 한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다시 청소를 하란다. 내가 마치 콩쥐팥쥐전의 주인공인 된 기분이었다.

원장은 의자 두 개 놓을 공간을 쓸 때도 꼭 멀리 있는 나를 불러서 쓸게 했다. 게다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을 하고도 실습시간은 점심시간과 아침 청소시간을 뺀 7시간이란다. 방학 때 하려고 미루었던 일들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았다.

원장에게 “두 시간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해서 며칠 일찍 마치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틈나는 대로 외출해서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여쭈었다. 원장은 대뜸 “다른 실습생들은 건물 뒤에 있는 텃밭까지 메고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선생님은 무슨 말이 많냐?”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인권을 실현하는 전문가이다. 본인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복지사가 과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찾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복지현장에 평등이 없는 한 이 사회의 평등은 진정한 평등이 아닐 것이다.

〈수필가〉

재벌들 기업 돈 아닌 개인재산 기부 더 늘어야

서서히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하지만, 겨울이 누구보다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 한겨울 지하도에서 골판지를 덮고 추운 밤을 지새우는 노숙자가 그들이고, 제대로 된 난방시설조차 없이 겨울 밤을 보내야 하는 독거노인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기부문화다. 특히 개인들의 기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돈 있는 부자들의 기부,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머릿속을 스친다.

“내 보유주식의 1%를 넘게 쓴다고 해도 내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더 행복해지지 않지만 내 재산의 99%를 사회에 돌려준다면 다른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워런 버핏 회장이 한 말이다. 실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 회장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거대 기업가들이 수백억씩 기부하는 문화가 자리잡혀 있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기부약속’이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40명의 미국 부호들이 참여해서 무려 1200억 달러를 모았다고 한다.

그들은 돈을 써야 하는 방법,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 나눔과 베풂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삶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 것만 취하면 되고 그 사유재산을 철저히 인정해 주는 것만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가진 만큼 나눠쓸 줄 아는 것을 자본주의의 기본에 넣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나라 부자들도 기부를 많이 한다. 그러나 개인재산이 아닌 기업 돈이 대부분이다. 자발적으로 개인재산을 흔쾌히 내놓는 미국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경제가 어려워 노숙자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지금, 이제는 가진 사람들의 적극적인 기부가 더 늘어나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신재민·목포시 수강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시련의 안나푸르나

안나푸르나(Annapurna, 8,091m). 만년설 뒤덮인 히말라야 8,000m급 14좌 가운데 트레커(Trekker)들에게 단연 인기를 끄는 봉우리다. 다양한 코스가 개발돼 있고, 지천으로 피어난 야생화와 하늘에 닿을 듯한 다랑이논, 산간 부족들의 생활모습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산군을 형성한 안나푸르나 형제들(남봉, Ⅰ·Ⅱ·Ⅲ·Ⅳ봉)을 비롯 히운출리(6,441m), 네팔인의 성봉(聖峰) 마차푸차레(6,993m) 등 은백의 거봉들이 연출하는 파노라마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준다.

‘풍요의 여신’ 안나푸르나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정상을 내준 8,000m급 봉우리이기도 하다. 1950년 모리스 에르조그가 이끄는 프랑스 원정대가 그 은밀한 기쁨을 맛봤다.

첫 등정 이후 6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상에 오른 산악인은 200명이 채 안되며, 등반 도중 사망자와 실종자는 6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만큼 등반하는데 위험 요소가 많다는 얘기다. 기상변화가 심한데다 눈사태가 잦고 곳곳에 도사린 크레바스로 악명이 높다.

한국 산악인계와도 악연이 깊다. 1989년 영남대 원정대원 2명이, 1991년에는 인천산악연맹 원정대 2명이 하산 도중 탈진과 눈사태로 각각 숨졌다. 국내 여성산악인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지현옥씨는 1999년 등정 후 하산 길에 실종됐다. 지금까지 희생된 한국 원정대원만 16명으로, 혹독한 희생을 치른 셈이다. ‘탱크’ 엄홍길 대장도 다섯 번 도전 끝에 정상을 밟았다.

에베레스트 남서벽, 로체 남벽과 함께 세계 3대 난벽(難壁)으로 꼽히는 안나푸르나 남벽에 새 루트를 내기 위해 도전한 박영석(48) 대장과 신동민(37)·강기석(33) 대원이 실종돼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대한산악연맹은 국내 최고의 고산등반가들과 전문 구조요원들을 급파했다. 실종 엿새째, ‘시간과의 싸움’인 수색에 성과가 있기를 고대한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